

# 문학사를 위하여—고유의 언어세계는 자명한가

고노시 다카미쓰(메이지대학 대학원 특임교수)

## 들어가며

약간 난해한 표제입니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학사의 서술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구승의 세계에 문학사의 시작을 두는 것은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당연한 일로 여겨져왔습니다. 문자는 외래의 한자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존재했을 구승의 단계를 생각한 것은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일본이든 한국이든 그 지역에 현재로 이어지는 인종이 현재의 언어로 이어지는 고유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역사인식 하에 고유한 문명 세계의 전개로서 지역의 문명사(일본사, 한국사)를 파악해왔고, 그 안에 문학사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학사의 기본적인 틀은 구승의 세계에서 시작되어 기재의 문학으로 전개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고유의 언어세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 과연 자명한지, 출발점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본 발표의 주제입니다.

## 1. 자기비평으로서

구승의 세계로부터 연속적·발전적으로 파악하는 문학사를 버리자. 이것이 제가 말하고 싶은 요점입니다. 이는 저 자신의 자기비평적인 반성이기도 합니다. 자기비평적 반성이라 함은 일찌기 제가 시도했던 문학사 개설에 대해서입니다.

문학의 발생은 문자에 의해 쓰여지기 이전의 구승 단계에 인정할 수 있다. 자연을 예측해서 추상하고 풍요를 상상력으로 획득하는 공동체적 행위인 제사 의식에서 일상어로부터 분열된 언어가 문학의 시작이다. 일상의 언어가 가지지 못했던 표현의 가능성이 거기서 열린 것이다.

신을 모시는 것은 신명(제사를 올려야 할 신의 이름)에 의해 자연을 추상하여 차지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신명이 현실적·즉물적인 일상어의 언어기능 차원에서 비약하여 추상의 차원에서 작용하는 것이다. 그것은 신들을 제사지내는 중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거기에서 언어만을 골라낼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지만, 신명은 이미 '표현'이라 부를 만한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해도 좋다. 마쿠라코토바(枕詞: 특정한 말 앞에 붙여 어조를 고르는 수식어-역주)는 본래 미칭(美稱)에 대한 찬사이고 신명이 지닌 찬사가 확대 형성된 것이라고 보듯이, 신명의 표현성에서 비일상적 언어표현은 시작된 셈이다.

이렇게 시작된 비일상적 언어표현은 제사 의식의 변질—신을 모시는 자가 신을

모시는 행위를 독차지하는—속에서 이데올로기화하여 새로이 탈바꿈하면서 점차 양식을 갖추게 된다. 그리고 이 양식화된 언어를 불가결의 매개로 하여 제사에 의한 수장적 지배질서가 성립된다.

그러한 표현양식의 특징으로서 (1)열거적·나열적 표현, (2)반복, (3)마쿠라코토바와 같은 특별한 수사, (4)운문성을 들 수 있고, 이 전체를 시적 언어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데올로기화되어 형태가 만들어진 제사의 언어 양식은 <시(詩)>라고 불러도 좋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가 그대로 문학의 새로운 전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주술성과 양식성의 틀이 표현의 자유로운 전개를 허락하지 않는다. 즉 <시>가 열어놓은 언어표현의 가능성은 일상의 언어에 의한 표현에서 비로소 자유로이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제사적 수장지배가 종언하는 시점에서 가능해졌다.

위의 인용은 구보타 준·우에노 오사무 편 『개설 일본문학사』(有斐閣選書, 1979년)에서 제가 담당했던 제1장 상대 제1절, 제2절(산문 담당) 중의 제1절 개설입니다.

약간의 해설을 덧붙이자면 일상의 언어로부터 분열된 언어와 그 기능에서 문학의 발생을 찾았던 것은 문학의 발생이 일상어의 단순한 연장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발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었다면 제사라는 장이 언어의 분열을 초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분열이 어떻게 표현으로 성립될 수 있었을까를 표현양식이라는 점에서 보고자 네 가지 지표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양식을 살펴보는 소재는 헤이안 시대 궁중제사에서 읊조렸던 ‘노리토(祝詞)’-엔기시키(延喜式)에 수록되었습니다. 또한 그것이 ‘시’적 양식 안에 머물러있는 한 가능성은 열리지 않는다고 보고, 양식의 틀을 넘어선 일상의 언어에 의한 표현(신화)이 정치성으로 인해 이데올로기적으로 확대된 제사 의식의 변질과 함께 열린 것이라고 파악했습니다. 위의 인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구승의 세계에 있을 수 있었던 신화에 주목하면서, 제2절에서 신화 텍스트(『고사기』『일본서기』『신대』)에 있는 내용은 보다 새로운, 그것과는 다른 레벨에서 구축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레벨은 새로운 국가적 왕권 이데올로기에 의해 열린 것이라고 파악했습니다. 정치적 체계화가 원래의 신화가 지녔던 풍부함을 짓눌렀다기보다는, 세계상적 전체를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적극적으로 정치성의 의미를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구승의 세계에 있을 수 있었던 신화와 『고사기』『일본서기』『신대』의 사이에 대해서, ‘신대’는 코스몰로지라고 부를만한 전체상을 만드는 것으로서 비약적인 새로운 전개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입장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구승의 세계에서 기재의 단계로 전개된다는 점, 구승의 세계(고유의 언어세계)를 전제로 연속적·발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그 생각의 기저에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는 근대 ‘일본문학사’의 패러다임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됨

니다. 메이지 시대에 성립한 대표적인 문학사, 하가 야이치 『국문학사 십강』(초판 1899년. 인용은 1927년판에 의함)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태고로부터 건국 이래 수천년간 외국의 침략을 조금도 받은 적 없이 만세일계의 천자를 받들고 천고불변의 국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학이나 불교가 들어와서 한어, 불교어가 섞이고 문법상의 구조가 다소 변한 것은 시대의 추세에 따른 자연스러운 일입니다만, 일본어는 어디까지나 일본어입니다. 이처럼 수천년 동안 대대로 이어오면서 일본어를 말하고 그 일본어로 지은 문학이 오늘날 우리들의 손에 남아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중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요컨대 국가의 시초부터 늘 변함없이 ‘일본어’로 살아온 나라에 태어난 몸으로서 ‘국민의 사상감정의 변천을 표현한 문학사’=‘일본문학사’를 보는 것이 필요하고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고유의 언어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확고한 전제입니다. ‘국민’의 일체성이 고유의 언어=‘일본어’에 의해 유지되어 왔다고 하는 관점에서 ‘일본’이라고 하는 틀은 담보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본 저의 문학사 개설은 구승의 고유의 언어세계를 의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근대의 패러다임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유의 언어세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 ‘일본’이라는 틀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고유성을 어디에서 인식하는가 하면 그 자체만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스스로를 대상화할 계기가 필요합니다. 고유성은 자명한가, ‘일본’이라는 출발은 자명한가 하는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 2. 구두(oral) 언어 세계의 천황——『고사기』가 창출한 ‘고대’ 세계

고유의 언어세계를 발견한 것은 다름아닌 한자 텍스트에서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한자라고 하는 외래의 문자를 매개로 했을 때 비로소 원래의 구승의 세계와 거기에 있었던 고유성이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고사기』의 오진(応神) 천황 기사를 예로 들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진 천황 때에 요시노(吉野: 나라현 남부 지방, 벚꽃의 명소인 요시노 산이 있음-역주)의 국주(國主)들이 술을 헌상하고 “擊口鼓,爲伎而(입으로 장단을 맞추고 춤을 추며)” 불렀다는 노래가 있습니다.

加志能布邇 余久須袁都久理 余久須邇 迦美斯意富美岐 宇麻良爾 岐許志母知袁勢 麻呂賀知

此歌者,國主等獻大贄之時時,恒至于今詠之歌者也.

[현대어역]

떡갈나무 숲에 폭이 넓은 절구를 만들고 그 절구에 찼어서 빻은 술입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우리들의 아버지여.  
 이 노래는 국주들이 오호니에(천황에게 바치는 음식)를 헌상할 때마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항상 부르는 노래다.

‘오호니에(大贄)를 헌상할 때’ 노래를 부른다고 했는데, ‘오호니에’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 다음에 나오는 황자 오호사자키노미코토(大雀命)와 우지노와키이라쓰코(宇遲能<sub>能</sub>和紀郎子)가 오호야마모리노미코토(大山守命)의 반역을 평정한 후 황위를 서로 양위할 때, ‘오호니에’를 바치려고 한 ‘아마(海人-어민)’들이 쌍방을 왔다갔다하다 지쳐서 울었다는 이야기에서의 ‘오호니에’와 더불어 생각해야 합니다. 이 ‘아마’의 에피소드에서 알 수 있듯이 ‘오호니에’는 천황에게 직접 헌상하는 것이며 천황이외에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천황에게 직속되어 있는 ‘베(部: 조정에 세습적으로 예속되어 있었던 농어민이나 기술자 집단-역주)’에서 헌상하는 공물이었습니다.

오진 천황 권에는 요시노 국주 이야기 직후에 “이 때의 치세에 아마베·야마베·야마모리베·이세베를 정하셨다(此之御世, 定賜海部·山部·山守部·伊勢部也.)”는 기사가 있고, 그 앞에는 세 명의 황자들의 역할분담에 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천황은 막내인 우지노와키이라쓰코에게 황위를 잇게하려는 의도에서 두 형 오호야마모리·오호사자키에게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는 오호사자키의 대답이 자신의 생각과 같다면서 다음과 같은 명을 내립니다.

大山守命, 爲山海之政. 大雀命, 執食國之政以白賜. 宇遲能<sub>能</sub>和紀郎子, 所知天津日繼也.

[현대어역]

오호야마모리노미코토는 산해(山海)의 정치를 집행하라. 오호사자키노미코토는 나라(食國: 오스쿠니.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역주)의 정치를 집행하여 주상하라. 우지노와키이라쓰코는 황위를 잇거라.

‘아마베·야마베·야마모리베·이세베’가 정해지고 이를 통치하는 것이 ‘산해의 정치’(야마베·야마모리베=산, 아마베·이세베=바다)라고 볼 때 여기서 ‘오호니에’ 기사가 산과 바다와 관련하여—요시노 국주는 산, 아마는 바다—이야기되는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나라’는 국조(國造)·현주(縣主)—세이무(成務) 천황 때에 국조·각국의 경계·현주를 정했다고 되어있습니다—를 통해 장악하는 반면, ‘산해’는 야마베·아마베 등을 정하여 직할하는 것입니다. 오호사자키·오호야마모리는 각각 ‘나라’와 ‘산해’의 ‘정치’ 집행을 담당합니다. 특히 오호사자키에 대해 ‘정치’를 행하여 ‘주상하라(白し賜へ)’고 한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상하다(まをす)’(말하다의 겸양어)는 말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듣는 행위가 있을 때 성립하는 것입니다. 듣는 입장에 있는 것은 ‘황위를 잇거라’라는 명을 받은 황자 우지노와키이라쓰코입니다. 우지노와키이라쓰코는 오호사

자키와 오호야마모리가 ‘주상하는’ 것을 ‘들으시는(きこしめす)’ 존재라고 삼자 관계가 결정됩니다. ‘정치’란 신하가 실행하여 ‘주상하고’, 천황은 그것을 ‘들으시는’ 것으로써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무(神武) 천황의 이른바 동정(東征)의 발단이 되는 말에 “坐何地者, 平聞看天下之政. 猶思東行.(어느 곳에 있으면 천하의 정치를 평안하게 들으실 수 있을까. 역시 동쪽으로 가야겠다)”고 하고, 후에 야마토에 궁을 정하고 동정을 이룬 것을 “坐敵火之白檮原宮, 治天下也.(우네비의 가시와라 궁에 자리를 잡고 천하를 다스렸다)”고 표현한 것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천하의 정치를 들으시는’ 일은 곧 ‘천하를 다스리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의 모습—‘들으시는’ 것에 의해 세계를 장악하는 천황—과 함께 천황의 세계의 확대, 그리고 그 제도적 지배의 완성을 세 황자의 배치로써 설명하는 것이 오진 천황의 기사라고 보아야 합니다. 두 가지 ‘오호니에’의 의미는 바로 이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천황—국(국조)·현(현주)…………… 나라의 정치—  
 | | —천하의 정치  
 오호니에—야마베·아마베…… 산해의 정치—

그 세계구조를 도식화하면 위와 같습니다. ‘나라’와 ‘산해’를 합한 전체가 ‘천하’이고 그것을 통치하는 것이 천황입니다. 야마베·아마베는 천황에게 직접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오호니에’의 현상으로 봉사합니다. 그리고 이 전체상이 곧 『고사기』의 세계상입니다.

『고사기』는 ‘주상하다’—‘들으시다’의 형태로서 원래 구두 언어 세계로 천황의 세계가 있었다는 것(‘고대’ 세계 본연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앞의 국주들의 노래도 이러한 맥락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마로가치(まろが父)’(우리들의 아버지 정도의 뜻)라는 친근감의 표현은 천황과의 직접적 예속관계 속의 친밀함인데, 이와 같은 노래를 주상하고 그것을 천황이 듣는 식으로, 직접적인 언어로써 연결되는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노래도 포함하는 고유의 언어세계입니다.

단 그러한 세계는 『고사기』에 표명된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했음을 기록한 것이라는 생각은 지나치게 단순합니다. 『고사기』에서 처음으로 형태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시노 국주의 노래가 궁정에 기원·유래와 함께 전해져 그것을 『고사기』가 이야기로 채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해하기는 쉬울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히려 역으로 『고사기』가 그렇게 기록함으로써 노래의 기원이 보장되었던 게 아닐까요.

전해내려온 가요는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유래가 전해져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것과 『고사기』의 역사 세계에서 요시노 국주가 직접적인 언어로 연결된 관계에 있었다고 노래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

라는 점입니다. 요컨대 노래가 역사적으로 자리매김되면서 그로써 천황의 세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임을 확실히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고사기』에서 구두 언어 세계로서의 자신들의 ‘고대’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 3. 고유의 언어에 의한 노래——『만엽집』에서의 노래의 발견

『만엽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만엽집』에 실린 내용을 통해 현실에서의 노래의 세계나 가인——노래의 현장이라고 합시다——을 추정해서는 안되고 거기서 멈춰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만엽집』의 기반이 되는 존재가 있었음을 생각해야 하겠지만, 선행하는 가집 같은 것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것에서 그치겠습니다.

『만엽집』은 노래의 세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텍스트가 만든 것으로 현실에서의 노래의 세계와는 별개입니다.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엽집』이 구성하는 노래의 세계  
표현되어 있는 노래와 가인

---

(현실에서의 노래의 세계)  
(실제로 있었던 노래와 가인)

종래의 연구에서는 『만엽집』 전 20 권에 동일 가인의 노래가 각기 다른 권에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 연차 정리가 필요하다 해서, 예를 들면 『작자별 연대순 만엽집』 『만엽집 연표』 등의 시도(재편성)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서 가인에 대해 논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작자’라는 표식을 가지고 노래를 모아 편년으로 정리하고 가인으로서의 활동이나 그 노래법을 생각하는, 혹은 연차적 정리 위에서 마쿠라코토바의 변천 등을 살펴보는 식으로 현실에서의 노래의 세계를 생각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만엽집』에 있는 내용을 그 자체로 이해하지 않고 현실에 있었던 것으로 환원해서 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연구되어야 하는가—— 『만엽집』을 넘어 노래의 현장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엽집』 안에서 그 노래의 의미를 보는 것이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 히토마로(人麻呂)라고 하는 작자 표시를 근거로 묶을 수 있는 노래의 집합이 있는데, 이 집합이 한 명의 작자(이때는 ‘가인’이라고 불러도 좋겠지요)의 작품으로 『만엽집』 안에 수록되어 있는 의미를 보는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인’을 포함해서 노래의 세계를 성립시킨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엽집』이 표명하는 바는 현실에 있었던 것과는 별개입니다. 『만엽집』은 역사속에서 계속 연명해온 노래에 대해 말합니다. 권 1~6 을 중심으로 노래의 ‘역사’ 세계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처음으로 고유의 언어에 의한 노래를 창출했다고 하겠습니다.

노래가 본래부터 있었고 그 누적된 자료로 『만엽집』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이해하기는 쉬울 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왔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만엽집』에 의해 생각해낸 것으로서 논리적으로는 예정화적인 순환론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것일 뿐입니다. 『만엽집』에서 보아야 하는 것은 본래부터 있었다고 표명하고 있는(혹은 발견된) 것입니다. 그 ‘발견’을 실체화하여 고유의 노래를 자명한 출발점으로 해서 ‘일본문학사’를 생각해온 것을 비판적으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고유의 언어세계가 없었다거나 노래 같은 것은 없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있었던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유성을 찾아내고 그 세계에 살았다고 스스로를 규정하는 것은 자기확증(自己確證)의 영위입니다. 거기서 바로 언어세계 안에 있는 천황이 창출되고 노래가 자신들의 문학세계가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표현하고 명확한 형태를 부여한 것이 한자 텍스트로서의 『고사기』와 『만엽집』이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한자 텍스트를 통해 표현된 것이고, 실제 있었던 현실의 세계와는 다른 것입니다.

#### 4. 고유의 언어세계를 자명한 것으로 하지 않는 문학사로

문학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한자에 의한 읽기쓰기는 고유의 문명을 초월한 문화적 전개로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고유의 언어와 고유의 언어에 의한 노래를 창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유성은 그 자체만으로는 인식할 수 없다고 앞서 말했습니다. 고유의 문명을 넘어 한자세계 속에 편입되면서 비로소 그러한 인식이 생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자세계 속에 일본열도가 편입된 것은 1 세기의 일입니다. A.D. 57 년에 왜왕(倭王)이 후한(後漢) 왕조의 책봉을 받은 것은 ‘왜’가 한자 세계에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한자세계는 한반도, 일본열도, 베트남까지 동아시아 전체를 하나로 연결하였으며, 일본열도는 한자세계의 극동에서 로컬의 영위에 속하게 됩니다. 그것은 공통의 문자(한자), 공통의 문장어(한문)로 교양의 기반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교양세계 또는 문화적 세계의 전개라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지역에 고유의 언어가 존재하는 가운데 세계의 공통언어는 한자·한문이고, 이를 학습하여 획득해왔습니다.

일본열도에 입각해보면 한자는 1 세기 이후 오랫동안 열도사회 외부에서 의미를 지닐 뿐이었습니다. 사회가 미성숙했기 때문입니다. 이윽고 5 세기에 들어와 열도내부에서 문자가 사용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7 세기 후반에는 열도 전체에 널리 문자가 침투하여 문자에 의한 행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후지와라궁(藤原宮) 출토 목간 등에서 확인되

있습니다. 그리고 8 세기 초엽 율령국가를 세우기에 이릅니다. 무엇보다 한자의 읽기쓰기가 파급되면서 문자(한자)의 교통에 의해 율령국가가 가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자가 일본어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리터러시(literacy)의 획득이라고 한다면 그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한자는 외국어(비모어)의 문자였으므로 애초에는 외국어(한문)로서 읽기쓰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외국어로서 한문을 학습하고 한문에 의해 읽기쓰기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7세기 후반에는 그와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즉 한문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예(외국어로서 쓴 것이 아닌 예)가 등장합니다. 오히려 비한문에 의해 문자가 파급되었음을 7세기 후반의 금석문이나 목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한문의 문자가 한문이 아닌 것으로 사용되는 일은 문자의 근본적인 질적 변환입니다. 이는 일본어로서 쓰는 것이며, 한자가 일본어와 회로를 갖는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일본어와 한자의 회로를 만든 것은 훈독(한문의 역독)이었습니다. 외국어 문자로서의 한자와 자신들의 고유 언어의 관계라고 하는 근본 문제는 거란에서도 한반도에서도 일본열도에서도 베트남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김문경 『한문과 동아시아—훈독의 문화권』(岩波新書, 2010년)이 아시아 여러 지역의 한문 훈독에 대해 개관한 바 있습니다. 역독법(훈독)으로 학습함으로써 언어와 문자에 새로운 국면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스스로의 언어의 고유성을 자각했음을 『고사기』 서문은 이야기합니다.

노래에 대해서 보면 7 세기 말 일본어의 다양한 표기가 병존했던 가운데 노래는 가나 표기를 선택했습니다(출토 목간이 증명해줍니다). 이는 분명히 의식적인 선택이었다고 판단됩니다. 노래는 미묘한 세부까지 제대로 읽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자일음(一字一音) 표기는 읽기를 한정하므로 읽는 방법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일자일음 표기의 선택에는 노래만큼은 세부까지 유일한 방법으로 읽지 않으면 안된다는 자각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자신들의 고유의 언어에 의한 노래라는 자각 또한 내포되어 있었다고 해도 좋겠지요.

이렇게 한자세계 속에 한자의 외래성과 대치하면서 생겨난 것이 있었음을 주지해야 합니다. 『고사기』와 『만엽집』은 그것을 기반으로 ‘역사’ 이야기와 노래의 ‘역사’적 구성에 의해 고유성의 형태를 표출한 것입니다.

고유의 언어세계를 무조건의 전제로 문학사 서술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있었던 것으로서 한자 텍스트에서 발견(창출)되었다는 관점에 서서 시작해야만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맺고자 합니다. 고유의 언어세계를 전제로 한 일국적 문학사(일본문학사, 한국문학사라고 하는 근대적·국민적 아이덴티티의 제도로서의 문학사)가 아닌 문학사가 거기서 열릴 것입니다.